

# ‘예술 꿈나무 등용문’



4월 18일~5월 28일 패밀리랜드·호남신학대 등서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만화·일러스트 부문 진행

64주년을 맞은 호남예술제가 오는 4월 18일부터 5월28일까지 열린다.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호남예술제는 광주일보사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가 창간 3년 후인 1955년 개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8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지금까지 58만여 명이 호남예술제에서 기량을 펼쳤다.

64회 호남예술제는 41일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호남신학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우치공원 등에서 열린다. 이번 경연은 음악(성악·기악·양상블), 무용(클래식 발레·창작 발레·현대무용·한국창작무용·재즈 등), 국악(기악·성악·가야금·타악 등), 미술(회화·한국화)·작문(산문·시), 만화·일러스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음악·무용·국악 부문 접수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art.kjmedia.co.kr)를 통해 오는 4월3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미술·작문 부문 접수는 오는 5월13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진행된다. 미술·작문 부문 초등부 대회는 오는 5월22일 광주패밀리랜드·우치동물원에서 진행되고 다음 날에는 중·고등부 대회가 이어진다. 중·고등부 만화·캐릭터·일러스트 대회는 같은 달 19일 조선이공대에서 열린다. 음악·무용·국악 부문 대회 일정은 접수 마감 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미취학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새싹 그리기 축제’도 오는 6월4~7일 그림을 접수받는다. 부문별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에 당일 날 공지하며 다음날 발행되는



64회 호남예술제가 오는 4월18일부터 열린다. 김하진(태봉초) 학생의 지난해 채상설장구 공연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일보 지면(문화면)에도 발표한다. 호남예술제는 광주·전남 뿐 아니라 명실상부 전국을 대표하는 종합예술제로 수많은 예술인들을 배출했다. 특히 의재 허백련, 오지호, 시인 김현승, 무용가 옥파일 등 유명 예술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예술제의 위상을 높였다.

호남예술제를 거쳐 간 인물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60회 부조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문지영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최고상을 수상했다. 또 파가니니 콩쿠르 3위에 입상하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린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도 호남예술제가 배출한 예술가다. 호남예술제 바이올린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남린, 남민 자매는 각각 금호영재 콘서트 오디션 합격, ‘2회 동아주니어콩쿠르’ 우승이라는 남보를 지난해 전해왔다. 교육자로는 바이올리니스트들의 대모로 불리는 김남운 한예중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원장과 강숙자, 정애련, 박계, 조수현, 김애령, 김진숙, 김혜경, 서영화, 박형숙씨 등이 대표적이다. 무용 부문에서 김선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호남예술제를 통해 꿈을 키웠

다. 초중고 시절 5차례 최고상을 수상했던 김 교수는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입상한 한성우 등 수십 명의 제자들을 길러냈다. 또 무용계 출신으로는 뉴욕 ‘덤보댄스페스티벌’을 열고 있는 김영순 안무가와 서자영, 김화례, 임지형, 김화숙, 김미숙, 임지형, 박준희, 정희자, 박선옥 교수 등이 눈에 띈다. 강연군 화백과 최영훈 전 조선대 미대교수, 시인 고재중, 양성우씨 등 호남예술제에서 배출된 작가들은 손꼽기 어려울 정도다. 문의 062-220-0541.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역임 오쿠이 별세

골수암 투병 향년 56세  
2008 광주비엔날레 때  
‘연례보고’ 전 세계 반향  
대인시장 전시공간 활용  
5·18 탐독 재해석 눈길



2008년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을 역임한 국제적 명성의 큐레이터 오쿠이 엔위저(Okui Enwezor)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56세. 18일 광주비엔날레 재단과 외신 등에 따르면 오쿠이 엔위저는 2016년부터 골수암으로 투병하던 중 세상을 떠났다.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뉴욕 뉴저지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그는 1994년 아프리카 예술을 중점적으로 소개한 잡지 ‘아프리카 현대미술 저널’을 창간, 현대미술계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1996년 요하네스버그비엔날레를 시작으로 카셀 도큐멘타, 스페인세비야비엔날레 등 해외의 우수 미술 축제의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아프리카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베니스비엔날레 총감독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오쿠이 엔위저 감독은 무엇보다 광주비엔날레와 인연이 깊다. 그는 재단이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감독제에 따라 신정아씨와 공동 감독으로 임명된 후 신씨가 학력 위주로 낙마하면서 2008년 광주비엔날레 단독 감독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광주비엔날레 사상 첫 외국인 감독이 기도 했던 그는 2008광주비엔날레 당시 ‘연례보고’라는 타이틀 아래 주제 중심 전시를 펼치며, 1년간 전 세계의 의미 있는 전시를 한 자리에 모은 기획으로 국내·외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광주 지역 큐레이터들과의 작업을 통해 쇠락해가는 대인시장을 전시공간으로 활용, 예술을 통한 도심 재생 성공 사례의 모형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

다. 이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인시장은 ‘예술시장’의 입지를 다져왔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해 정치적 이슈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예술감독으로 임명되기 10여년 전 광주 향정을 접한 뒤 5·18 관련 서적과 사료를 탐독해왔다. 비엔날레 당시 5·18을 재해석해 눈길을 끌었던 그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18은 한국의 역사를 넘어 이미 세계적인 역사가 됐다. 현대미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비엔날레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5월을 조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 독립혁명, 파리혁명, 광주 항쟁 등은 시대는 다르지만 자유를 향한 시민들의 열정은 같은 색깔이다. 특히 5월항쟁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광주비엔날레는 타 비엔날레와 다른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감독 제의를 선택 수락한 것도 역사적인 미술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쿠이 엔위저는 지난해 6월까지 뮌헨 하우스데어쿤스트 미술관장을 지냈으며 지난 3월 하우스데어쿤스트 미술관에서 개관한 아프리카 미술가 ‘엘 아나추이’ 전이 그가 마지막 기획한 전시가 됐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베네치아...여인...꽃 ‘아름다운 동행’

이정섭전 31일까지 전남대병원 CNUH갤러리

‘물의 도시’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풍경이 화폭에 담겼다.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문화의 향기를 제공하기 위해 매달 전시회를 열고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병원장 이상용)은 서양화가 이정섭 초대전을 오는 31일까지 병원 1동 로비 CNUH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탈리아 베네치아·피렌체 등의 명소와 꽃과 여인의 모습이 어우러진 작품 20여점이 선보인다. 베네치아의 호수·강·다리 등을 배경으로 한 작품은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시키며 피렌체의

웅장한 풍경과 함께 기념촬영 중인 신혼부부, 그림 그리는 화가,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시민 등의 모습이 어우러진 ‘미켈란젤로 광장에서’는 편안함을 전한다. 전남대 미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이 작가는 단체전 수 십회와 개인전 14회로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제5회 대동미술상을 수상했다. 이 작가는 전남대·광주대·순천대·전남과학대 외래교수와 전라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미협·강남미협·대한민국현대인물화학회 등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0-5104. /김미은 기자 mekim@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 도립어린이국악단 객원예술감독·단원 모집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 객원예술감독과 신규단원을 오는 2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객원예술감독은 월 2회 주말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하계합동연습, 정기공연 작품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경험자는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서류심사 후 면접을 통해 채용된다.

어린이국악단은 전남 지역 초·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규단원도 모집하고

있다. 모집분야는 창악, 무용, 기악 등 3개 분야로, 오는 30일 남도소리올림픽에서 실기시험(자유곡 1곡)과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선발된 단원은 월 2회 주말교육 및 하계합동연습을 하고, 연 1회 정기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응시 원서는 전남도립국악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1-980-996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새로운 소리를 듣다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